

부드럽고 강하게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올해 광주비엔날레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계(Soft and weak like water)'다. 주제가 눈길을 잡는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니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격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로 노자가 쓴 도덕경 78장 유약어수(柔弱者水)에서 빌려왔다고 한다. 올해 14회로 4월7일부터 3개월간 전시되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하길 바란다.

전에 김제선 경기평생교육원장이 필자에게 '곡죽전(曲則全)'이라고 직접 쓰고 판 낙관(도장)을 선물한 적이 있다. 도덕경 22장 '곡즉전 왕즉직(曲則全 枉則直)' 곧 굽으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곧게 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가 한때 노자 철학에 심취해 있어서 마음을 담아 선물했다고 한다. 늘 옆에 두고 마음으로 새기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을 때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필자가 해석한 노자도덕경 해설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81장 중 30여장을 하다 그만 뒀다.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기가

바쁜 기업가들에게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노자의 무위(無爲)철학을 강론하니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은 한 기업 대표가 와서 붓글씨로 물을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래서 큼직하게 마치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을 형상화하듯 물 수(水)자를 흘림체로 써 준 적도 있다. 물처럼 생각하고 물처럼 행동하고 물처럼 경영하라는 메시지였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노자 철학의 '물처럼'은 부드럽고 여러계라기보다 부드럽고 여러나 강하게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어머니의 품이요 부드럽고 유연함의 상징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죽고 인간성은 상실된다. 또 물은 부드럽기 그지없으나 모든 것을 덮어 버릴 수도 있고 단단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물은 약하나 강한 것이다. 그래서 물처럼 부드러우나 강하게 살자는 것이 내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갑자기 물을 화두로 삼은 것은 우리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영이 물처럼 부드럽고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태원 참사 비극이 있었다. 그러면 응당 국정수장이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불어 행정책임자에 대해선 책임을 지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왜일까. 강하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것을 강하다고 생

각해서 믿고 따를까. 물처럼 부드럽게 사과하고 책임지게 하고 아픈 상처를 보듬어야 맞다.

얼마 전 광주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 자못 분위기가 격양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강대 강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의 강함을 보여주려 강한 질타를 퍼부었고 이에 광주시장 역시 강한 시장임을 보여주려 한듯하다.

그 강한 대화의 결과는 광주시를 위해 강한 결론이 나왔을까. 시민운동가고 의원 어떤 방법이 꼭 강해야 할까. 대화와 설득은 부드러울 때 서로에게 침투하는 법이다. 또 무조건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용인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어법과 대화가 필요하다. 물론 강해야 할 때도 있다. 적과 싸울 때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이란 말이 있다. 아주 흔한 말로 좋은 사람의 덕성을 일컫는다. 겉은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곧고 굳세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람의 성향을 말할 때 겉도 강하고 속도 강하면 강해보이나 일을 그르칠 사람으로 보고, 겉은 강하나 속이 약하면 위선적으로 보고, 겉도 속도 약한 사람은 무능하게 본다. 속이 곧고 굳세나 항상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유연함이 있다면 최상의 정치와 행정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무엇인가? 2000년 전의 노자가 우리에게 묻는다.

社說

광주 택시요금 합리적 인상안 고민해야

업계·이용자 고통 고려해야

오는 3월말부터 광주지역 택시요금 이 인상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가 기본요금(2km)을 현재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현행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인 할증 적용 시간도 밤 11시부터로 한 시간 앞당겨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건의해 이 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이다. 이런 내용의 인상안이 알려지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은 "4000원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기본요금 4600원 인상, 야간할증 밤 10시 ~ 다음날 새벽 4시로 확대, 할증률 최대 40% 인상" 등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주 연료인 LPG 가격이 크게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

광주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업계 경영난과 택시기사 수익 감소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9년 이후 4년간 동결된 택시기

본요금으로는 택시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택시 요금 인상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택시요금을 기존 3800원보다 1000원 인상(26.3%)하고, 기본요금 거리를 2km에서 1.6km로 줄였다. 택시요금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서민들이 비명소리를 내고 있다.

장바구니물가 상승에다가 전기·도시 가스 요금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인상은 되레 승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과 달리 택시는 시내버스라는 대체수단이 있어이다. 광주시는 이달중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중순 물가대책심 의위원회를 거쳐 3월 말 택시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 서민들이 모두가 힘든 시기로 고통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심의위에서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상안도 출되기를 기대한다.

늘어나는 고독사 안전망 확충통해 예방을

전남 고위험군 2천여명 달해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전남의 고독사 위험군이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죽는 것을 말한다. 사는 동안 외로움을 겪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마저 홀로 맞을 가능성이 높은 그들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고독사 위험군이 모두 1969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층이 82%인 1614명으로 조사됐고, 50~64세와 30~40대도 각각 271명과 7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 조사에서도 전남은 인구 10만 명 당 고독사가 2017년 4.1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남은 전체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고 한다.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핵가족을 지나 1

인 가구 추세로 향하고 있다. 통계청도 오는 2040년이면 1인 가구가 4인 이상 가구의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만큼 고독사 위험군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전남의 고독사 위험군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홀로 생활하는 청·장년층의 고독사도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젊은 층은 외부와 단절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 생사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독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정부와 함께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포함해, 연령과 소득 수준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확충해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는 사적·공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죽음은 삶의 중요한 과정이다. 평생 외롭게 살았더라도 죽음만큼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뉴질랜드 국방부가 제공한 사진에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네이피어 인근 에스브 벨리에서 한 어린이가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침수된 집 지붕에서 군인 품에 안겨 헬기로 구조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우리나라 대중목욕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교사와 일본인 등의 국내 거주가 늘어나면서 호텔과 여관이 생겨났고, 그들의 목욕수단에 따라 숙박 시설에 욕실을 설치했던 게 시초로 알려져 있다.

근대적 형태의 대중목욕탕은 1924년 평양에서 처음 문을 열었는데 당시 행정관청인 부(府)에서 직접 목욕탕을 운영했으며 관리인도 따로 임명했다고 한다. 이듬해인 1925년 서울에서도 대중목욕탕이 첫 선을 보였다. 광복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위생관념이 강조되면서 대중목욕탕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영업허가를 위한 시설 규정도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휴식기능을 겸한 목욕문화가 태동했다.

목욕탕업은 이후 2000년대까지 고속 성장을 이어왔고 대규모 사우나와 찜질방 시설로도 확장됐다. 세태를 반영하듯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대중목욕탕씬이 빠지지 않았고, 1990년대 중반 방영된 TV 주말연속극 '목욕탕집 남자들'은 공전의 히트를 치기도 했다.

한국의 대중목욕탕은 가족, 친지, 이웃간 목욕을 하면서 정을 나누는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이다.



어릴 적 아빠나 엄마 손에 이끌려 동네 목욕탕에 가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그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던 추억은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을 터이다. 또 개운해진 몸으로 목욕탕 문을 나서며 마셨던 요쿠르트와 바나나우유는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그런데 대중목욕탕이 우리 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주거문화 변화 등 시대 흐름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가 맞물린 탓이다. 코로나 유행 기간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으니 이젠 치솟은 가스비와 수도, 전기 요금이 털미를 잡았다. 대중목욕탕

은 업종 특성상 하루 온종일 보일러와 난방을 돌려야 하는데 연료비와 전기료가 급등하고 손님은 갈수록 줄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곳이 많아졌다. 코로나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적으로 1000곳 가까운 대중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있다. 막대한 철거 비용 부담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목욕탕도 부지기수다.

단순히 세신(洗身)을 위한 공간을 넘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대중목욕탕이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

최권범 경제부장 겸 뉴스콘텐츠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